



美 연중 의장에
쿠팡 사외이사 지명
고강도 규제 '멈칫'
너

metro®

Life

지난해
온라인쇼핑 270조
역대 최대
L2



금융, 모두에게 공평하게... 교육 넘어 경험·자립까지 돕는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토스증권

우리의 일상 속 금융생활은 이제 예전과 전혀 다르다.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증권 투자 애플리케이션(앱)과 은행 계좌 앱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시대가 됐다. 모바일을 통해 송금하고 결제하며, 투자 정보에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일도 특별하지 않다. 금융·투자 활동은 더 이상 일부 전문가나 자산가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매일 마주하는 생활 인프라가 됐다.

하지만 금융서비스의 확산 속도만큼 금융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여러 연구는 금융거래 경험과 정보 소비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위험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내리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지식과 행동은 강화되는 반면, 저축 성향이나 미래 대비와 같은 금융태도는 오히려 약화되는 '비대칭적 성장'이 나타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교 기반 금융교육이 현실의 금융환경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여기서 출발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토스증권은 '금융의 기회를 넓히는 일' 자체를 사회적 책임으로 정의하고, 교육과 연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다.

토스증권의 사회공헌은 흔히 '연말 기부 이벤트'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금융시장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해 온 본업의 철학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 교육과 자립 지원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 이해력의 불균형과 기회 격차를 해소하려는 시도는 단발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성과 확장성을 갖춘 사회적 실천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금융교육의 '접근성'에서 '역량 강화'로

토스증권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축은 금융교육이다. 단순히 금융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여자들이 실제 삶 속에서 금융적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알게 하는 교육'을 넘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교육과 결이 다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자립준비 청년은 보호시설이나 가정위탁 환경에서 생활하다 일정 시점 이후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하는 이들로, 경제적 기반과 금융 정보가 모두 취약한 경우가 많다. 토스증권은 이들의 현실을 출발점으로 삼아 재무 설계, 투자 기초, 자산 관리 등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내용을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교육은 강의로 끝나지 않았다. 토스증권 임직원이 직접 멘토로 참여해 개인별 상황과 고



토스증권에서 자립준비청년 위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토스증권



토스증권이 진행한 서울시 중장년층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토스증권이 굿윌스토어 굿사이클링 캠페인을 진행했다.

민을 함께 나누는 맞춤형 멘토링이 이어졌고, 일부 참가자에게는 인턴십 기회도 제공됐다.

금융교육을 실제 진로 탐색과 현장 경험으로 연결한 것이다. 교육 이후에도 스스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는, 금융역량을 '지식'이 아니라 '자립의 기술'로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준다.

중장년층을 위한 금융교육 역시 같은 철학 아래 진행됐다. 토스증권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해 '안전한 노후, 똑똑한 선택'을 주제로 40~60대 시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능화되는 금융사기 유형과 실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예방 전략,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강연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지며 중장년층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토스증권의 금융교육은 연령이나 경험에 따라 확립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청소년·청년·중장년층 각자의 삶의 국면과 금융 위험에 맞춰 교육 내용을 설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학교에서 배운 금융지식'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개인의 재무적 판단력과 책임감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실천적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

◆기부를 넘어 자원의 재순환까지...굿윌스토어와의 연대

토스증권의 사회적 책임은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회사는 굿윌스토어와의 협업을 통해 자원 재활용과 장애인 자립을 동시에 고려

일상이 된 금융생활... 기회 확장 도와 교육·연대 중심 사회공헌 활동 펼쳐

자립준비청년 대상 금융교육·멘토링 강의 넘어 진로탐색·현장경험 기회까지 금융사기 예방 등 중장년층 맞춤 교육

굿윌스토어와 협업... 자원 재활용 앞장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자립 지원도

한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토스증권은 '굿사이클링 캠페인'에 동참해 투자 행사에서 사용한 의자 200여 점, 약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다. 이 물품들은 굿윌스토어 매장에서 판매되고, 그 수익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 재활 지원에 사용된다. 단순히 물품을 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된 자원 → 판매 → 고용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굿사이클링 캠페인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토스증권은 2023년 연말 임직원 참여 기부 캠페인을 계기로 굿윌스토어와 인연을 맺은 뒤, 이번 기증을 통해 두 번째 나눔을 이어갔다. 이러한 연대는 일회성 후원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십으로

확장되고 있다.

◆금융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 사회적 신뢰로 이어지다

토스증권의 사회공헌 활동은 '선행'이나 '이미지 제고'에 머무르지 않는다. 금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온 본업의 문제의식을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는 과정이다. 금융거래 경험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책임 있는 금융행동과 장기적 재무 관점은 여전히 개인별 격차가 크다. 토스증권은 이러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 금융교육과 자원 순환 활동을 통해 금융을 '권리이자 기회'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금융 교육과 실질적 경험이 모든 세대에게 공평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해 금융교육의 저변을 넓히고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은 이제 단순한 거래 수단을 넘어,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본 도구가 됐다. 토스증권의 사회공헌 로드맵은 금융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를 실천으로 보여준다. 더 쉽게 투자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더 잘 이해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 토스증권이 그리는 사회적 금융의 방향은, 금융이 일상이 된 시대에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설 연휴에 고궁·왕릉 무료 개방...사흘간 세화 나눔 행사 /사진 뉴시스
▲뮤지컬 '서편제' 4월 개막...이자람·차지연·소리꾼 김준수 출연

▲서울문화누리카드, 연간 1만원 증액...“문화생활 문턱 낮춘다”
▲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 후배 상대 손배소 2심 내달 시작

▲'김동현 제자' 김상욱, UFC 진출 좌절...마르 판에 완패
▲김선호도 가족 법인 의혹...“탈세 목적 아냐, 폐업 절차 중”